

베트남, 일본 섬유시장 공략 강화

1/4분기 섬유수출 20% 확대 ... 납기 · 품질안전성에 수입관세 면제

베트남 섬유 수출기업들이 일본시장 공략에 나섰다.

베트남 일간신문 투이오 제는 베트남섬유의류협회(VITAS) 소식통을 인용해 2009년 1/4분기 섬유의 일본수출이 2억1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% 늘어났으나 전체 수출은 0.01% 감소한 19억달러로 정체돼 당초의 예상치를 훨씬 밑돌았다고 보도했다.

기존 주력시장인 미국과 EU(유럽연합)로부터 신규 주문이 줄어든 반면, 일본수출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.

한 시장 관계자는 주문량과 단가 측면에서 일본이 유일하게 안정세를 유지하는 해외시장이라고 전했다.

또 2007년부터 일본시장에 주력해온 섬유 생산기업 비엠티엔의 판 반 끼엣 부사장도 “경제위기로 위축된 섬유 수출의 대표적인 대안이 일본”이라며 “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성이 높은 시장”이라고 평가했다.

여기에 2008년 베트남과 일본이 경제동반자협정(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)을 체결하면서 베트남이나 ASEAN(동남아국가연합)에서 생산된 원 · 부자재를 이용한 베트남산 섬유류에 대해 일본이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도 베트남 기업들의 일본수출 확대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VITAS의 레 쿡 안 회장은 “일본 소비자들이 베트남산 섬유를 선호하는 것은 일관된 납품 일정과 베트남 근로자들의 뛰어난 솜씨를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”이라고 주장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5/04>